장미란의 눈물

최선 다했지만 4위…"국민들께 실망드렸을까봐 염려"

여 역도 중량급 간판 퇴장…인터뷰서 참았던 눈물 쏟아

한국 역도의 간판 장미란(29·고양시청)이 5일(현지시각) 런던올림픽 여자역도 최중량급 경기가 끝나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장미란은 이날 영국 런던의 엑셀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입상권 진입을 타진했으나 4위로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

플랫폼을 내려와 공동취재구역에서 한참을 뒤돌아서서 울다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을 이어갔다.

장미란은 "베이징올림픽 때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기록이 나와서 나를 응원하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실망시켜 드렸을 것 같아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끝나서 좋다"며 "마지막까지 잘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연습 때만큼은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미란은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고 잔 부상에 컨디션도 악화해 전성기때 최고 기록인 326㎏보다 훨씬 낮은 289㎏에 그치고 말았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서러운 모습이었으나 기량의 쇠퇴와 기록의 후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표정도 있었다.

장미란은 "다치지 않고 잘 끝나서 다행"이라며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기 전부터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쑥스러웠다"며 "(국민이) 부족한 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과거에 큰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미란은 역도와 비인기 종목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서 눈물을 훔치며 공동취재구역을 빠져나갔다. 이날 경기에서 장미란은 용상 3차 시기에 실패한 뒤 올림픽 무대와의 작별을 암시하듯 손으로 바벨에 간접 키스를 건넸다. 바벨을 어루만지다가 두 손을 모으고 플랫폼에 꿇어앉아 기도한 뒤 관중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새 챔피언을 두고 저우루루(중국)와 타티아나 카시리나(러시아)의 격전이 벌어지기 전에 장미란이 경기를 마치고 퇴장하자 관중은 우레 같은 박수갈채로 옛 챔피언을 위로했다. /연합뉴스

조호성 '아름다운 도전 16년' 마감

'억대 경륜스타'에서 올림픽 메달 꿈 위해 복귀

삼십대 후반 나이에도 끝없는 열정 깊은 감동

한국 사이클의 간판스타이자 믿음직한 맏형 조호성(38·서울시청)의 16년에 걸친 도전이 아름답게 끝을 맺었다.

조호성은 4~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올림픽공원 내 벨로드롬에서 열린 남자 옴니엄에서 6종목 순위 합계 60점을 기록해 11위로 대회를 마쳤다.

성적만으로 놓고 보면 아쉬운 결과다. 조호성은 '불모지'로 불리는 한국 사이클에서 가장 메달에 가까이 다가갔던 선수이기 때문이다.

조호성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40㎞ 포인트레이스에서 20번째 바퀴까지 공동선두를 달렸고, 막판 스퍼트가 약했음에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12년 전의 이야기다. 처음 올림픽에 출전했던 1996년 애틀랜타 대회를 포함하면 무려 16년 동안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성적을 떠나 깊은 감동을 준다.

아쉽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마감한 조호성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관왕에 오른 뒤 2004년 경륜으로 전환했다. 경륜 선수로서도 조호성은 최고였다. 2005년부터 4년 연속 상금 랭킹 1위를 차지했고 47연승의 대기록도 세웠다.

그러나 2008년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는 아쉽게 놓친 올림픽 메달을 꿈을 좇겠다며 아마추어로 돌아왔다.

수억 원의 연봉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가능성만 따지자면 애초부터 무리한 일이었다. 불혹을 향해 가는 몸은 아무리 철저히 관리한다 해도 20대 중반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게다가 목표로 삼은 런던올림픽에서는 과거 자신의 주종목이었던 포인트레이스가 없어 이틀 동안 6개 세부종목을 치르는 옴니엄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조호성은 호주와 프랑스, 스위스 세계사이클센터(WCC) 등을 오가며 1%의 가능성을 향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최종 성적은 11위에 그쳤지만 '도전'이라는 꿈을 따라간 조호성의 '올림픽 정신'은 그 자체로 금메달감이었다. /연합뉴스

올림픽 사상 첫 여자복싱 공 울렸다

플라이급 출전 북한 김혜성 1회전 탈락

올림픽 여자 복싱의 첫 '공'이 울렸다.

2012 런던올림픽서부터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여자 복싱이 5일(현지시각) 역사적 시작을 알렸다.

영국 런던 엑셀 사우스아레나에서 열린 플라이급(48~51㎏) 엘리나 사벨리예바(러시아)와 김혜성(북한)의 경기는 그 역사적인 '개막전'이었다.

이 경기에서 첫 펀치를 날린 것은 김혜성이었지만 경기 결과에서는 사벨리예바가 12-9 판정승을 거뒀다.

복싱은 런던올림픽 전까지 하계올림픽에서 여자 종목이 편성되지 않은 유일한 종목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날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올림픽 종목 양성평등의 한 획을 긋는 새 역사로 기록됐다.

'개막전' 승리의 주인공인 사벨리예바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여자 복싱에 대한 내 자부심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첫날은 개막전을 비롯해 라이트급(60㎏), 미들급(75㎏)등 총 12경기가 펼쳐졌다. 이날 출전한 선수 중 몇몇 선수는 치마를 입고 링에 오르는 등 복장은 다소 달랐지만 여자 선수들이 날리는 어퍼컷이나 강펀치 등 경기의 박진감은 남자 복싱과 별다를 것이 없었다. 관중도 훌륭한 승부에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연합뉴스

태극전사 경기 일정

◇7일(한국시각)
▲16시30분 하키 남자 예선 B조 대한민국 vs 네덜란드
▲18시19분 사이클 여자 옴니움 3km 개인추발 이민혜
▲18시45분 남자 세단뛰기 예선 김덕현
▲19시30분 트라이애슬론 남자 허민호
▲21시00분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66kg급 김현우

◇8일(한국시각)
▲03시00분 역도남자 +105kg급 전상균
▲03시45분 남자 축구 준결승 대한민국 vs 브라질
▲17시15분 태권도 남자 -58kg급 이대훈
▲18시00분 육상 남자 장대높이뛰기 김유석
▲21시00분 레슬링 여자 자유형 48kg급 김형주

투타 안정 KIA, 안방 6연전 대반격

⚾ 프로야구 전망대

호랑이 군단이 견고해진 창과 방패로 8월 대반격을 노린다.

KIA가 지난 주 난적 롯데·두산과의 원정 6연전에서 4승을 거두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0.506의 승률이 된 KIA는 4위 SK(승률 0.511)를 반 게임차로 쫓고 있다. 3위 롯데와도 1.5게임차 밖에 나지 않는 박빙의 순위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 KIA는 안방에서 6경기를 치른다. 주중 넥센과의 승부에 이어 주말에는 롯데와 만난다.

여름에 강한 KIA는 8월 들어 3.25의 팀방어율로 4승1패를 기록했다. 잠자던 방망이가 깨어나면서 8월 팀타율도 0.306으로 경충 뛰어올랐다. 지난주 원정 6연전에서 7개의 홈런포도 쏟아졌다.

무엇보다 선발진의 안정이 KIA의 가장 큰 무기다.

4일 경기 전까지 KIA의 선발진은 10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 행진을 펼쳤다.

5일 두산전에서 소사가 9회 투런포를 얻어맞으며 8과3분의1이닝 4실점을 기록했지만 퀄리티스타트 이상의 가치가 있는 피칭이었다.

앤서니·김진우·윤석민·서재응·소사를 앞세운 선발 야구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KIA의 순위 싸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KIA 순위싸움의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 든든하게 불펜을 지켜주던 맏형 최향남이 지난주 최악의 피칭을 선보였고, 위태롭게 자리를 지키던 박지훈도 2군으로 내려갔다. 중간에 승리를 이어줄 계투진이 마땅치 않으면서 지난 주에도 두 차례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다.

'집중력'도 관건이다. KIA는 7월 막바지 최하위 한화와의 경기에서 싹쓸이 3연패를 당하면서 4강 굳히기에 실패했다. 집중력이 아쉬웠던 3연패였다.

불펜의 난조속에 마지막 아웃카운트까지 방심하지 않는 집중력 있는 플레이가 8월 대반격을 좌우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월 8일(수)
▲광주청록산악회 전북 부안 쌍선봉,해수욕장 8월8일(수) 7시50분 백운동 로타리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예술회관후문, 8시20분 동광주ic입구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T. 011-646-3450, 011-259-0284

8월 11일(토)
▲남도산사랑 8/11(토) 막장봉, 장성봉. 괴산 6시 롯데마트월드컵점, 6시15분 시청주차장건너편, 6시30분 비엔날레주차장
※다음카페: 남도산사랑 T. 010-4741-4433
▲광주희망토요산악회 내연산 청하계곡 / 12폭포, 8월11일(토), 염주체육관(06시), 광주역(06시15분), 비엔날레주차장(06시30분)
※다음카페:광주희망토요산악회 참조
T.010 9602 3925, 010 7750 7210
▲광주토요산악회 산청, 웅석봉과 레프팅 8월11일(토) 6시30분 염주체육관(광주역, 비엔날레 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토요산악회 참조
T. 010-3608-4267, 010-3642-2849

8월 12일(일)
▲광주도이터산악회 진안 덕태산 & 선각산 (계곡산행) 1142m 8월 12일(일) 붕선동 도이터매장 7시출발(5분 동아병원앞 10분 농성역1번출구 25분 농성삼익아파트앞 35분 문예후문 40분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산행분담금: 25,000(목욕비별도)
T. 010 -3786-3120, 525-3120
▲광주둘레길동호회 8월12일(일) 신안 증도 모실길(3코스) 목포대교, 고하도 경유, 7시30분 염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광주둘레길동호회
T. 010-3608-9921
▲광주산행지킴이 경남 산청 왕산(필봉) 경호강 래프팅(제62차),래프팅 산행 8월12일(일) 탑승지 및 시간 : 6:30 염주체육관, 6:45상무지구 무각사 입구, 7:00 비엔날레 주차장, 7:15 첨단 쌍암(호수) 공원 주차장 동부@건너편
T.010-4448-4257(그린)010-4754-9510(친환경), 011-445-8131(아우디)
▲광주거북이산악회 8월 12일(일) 강릉 부연동 "개다니계곡 물속 트레킹" 월드컵경기장 롯데마트주차장 04:50, 무등경기장 정문 05:10, 비엔날레주차장 05:20
T. 011-602-7882, 016-655-3006
▲광주한울산악회 8월12일(일) 경남 하동 청학동&삼신봉&쌍계사, 남광주농협 07:30, 문예회관 후문 08:00, 비엔날레주차장 08:05 출발
※네이버카페 한울
(http://cafe.never.com/hanail)
T. 011-625-5234, 010-4328-7700
▲광주비두리산악회 광양 백운산 도솔봉 성불 계곡 8월12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무성관광) 두암동 홈플러스 경유
※네이버 카페 광주 비두리 산악회
T. 010-4618-2589

8월 15일(수)
▲광주토요산악회 통영 연화봉 8월15일(수) 6시30분 염주체육관(광주역, 비엔날레 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토요산악회 참조
T. 010-3608-4267, 010-3642-2849
▲광주청록산악회 경남 거창 아홉산 8월15일(수) 7시50분 백운동 로타리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예술회관후문, 8시20분 동광주ic입구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T. 011-646-3450, 011-259-0284

8월 16일(목)
▲광주둘레길동호회 8월16일(목) 군산구불길(3코스), 7시30분 염주체육관, 7시40분 염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동아병원,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광주둘레길동호회
T. 010-3608-9921

8월 18일(토)
▲남도산사랑 8/18(토) 월이산. 옥천 6시30분롯데마트월드컵점, 6시45분 시청주차장건너편, 7시 비엔날레주차장
※다음카페: 남도산사랑 T. 010-4741-4433
▲광주금당산악회 8월18일(토) 밀양 영남 알프스 구만산 억산 계곡산행 (출발)진월동(구) 해태마트앞 5시20분, 염주체육관주차장 5시30분, 한국병원앞 5시40분, 문화예술회관후문 5시50분, 비엔날레주차장 6시
※다음까페 광주금당산악회 T. 011-629-2678

8월 19일(일)
▲요산회 8월19일 산청 딱바실골 백운계곡 계곡트레킹 무각사 6시20분, 문예정문 6시25분, 광주역광장 6시40분, 동광주 홈6시50분
※다음카페 요산회 참조
T. 010-5152-2629, 011-606-4366
▲광주한울산악회 8월19일(일)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남광주농협 05:30, 문예회관후문 06:00, 비엔날레주차장 06:05 출발
※네이버카페 한울
(http://cafe.never.com/hanail)
T. 011-625-5234, 010-4328-7700
▲광주한빛산악회 8월19일(셋) 밀양 구만산, 통수골계곡, 광주역(앞) 06:40, 운암동(문화예술회관) 후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 07:00
※다음카페 광주한빛산악회 참조
T. 010-3131-3580
▲광주효사랑산악회 8월19일(일) 단양 도락산, 해태마트 05:20, 남구의회 05:30, 염주체육관 05:40, 무각사 05:50, 문예회관 후문 06:00
※다음카페 광주효사랑산악회
T. 010-3005-3009, 010-3603-2021

8월 22일(수)
▲광주청록산악회 경남 산청 둘레길5코스 8월22일(수) 7시50분 백운동 로타리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예술회관후문, 8시20분 동광주ic입구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분할 및 건설업양도공고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
서한산업개발주식회사("갑")는 2012년 8월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사업부문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분할하여 서영건설주식회사("을", 가칭)를 설립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 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18조 및 시행규칙18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1개월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계재일익일부터 1개월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양도대상 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번호 : 목포 2006-29-2호)
2.양도예정일자 : 2012년 9월 10일
3.분할회사내역
"갑"(양도자) 서한산업개발주식회사 (tel : 061-284-1616) 전남 목포시 상동 1148 초원오피스텔 212-1 대표이사 : 서 행 조
"을"(양수자) 서영건설주식회사(가칭) (tel : 061-284-1616) 전남 목포시 상동 1148 초원오피스텔 212-1 대표이사 : 오 영 록
2012년 8월 7일
서한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서 행 조

조갑형·덕형(주·동남산업, 남구 봉선동)님께
창고(북구 풍향동 23-93, 금성맨션상가 2층 4호)안 가로등 자재를 8월 21일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연락 없을 때는 임의 처리하겠습니다.
2012. 8. 7
김 병 연 010-8637-7763

ISO 9001, ISO 14001 품질인증
심사 및 컨설팅 전문
ICR 국제 품질인증원에서 귀사의 발전을 도와드립니다.
상담전화 010-2932-9099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모집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네번째 산행 8월 24일(금) / 민주지산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주 최 |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